

2015 / 06 / 10 (WED)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 섹터는 하락세. 美 금리인상 우려 및 그리스 협상 난항 등으로 대형 IT주들이 약세 보이면서 지수하락 주도.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부진 우려로 2%이상 하락.

수급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수세로 솔브레인, 골프존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이오테크닉스, 삼성SDS, LG디스플레이 약세.

종목별로는 건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 전망에 리노공업이 2.8% 상승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420.70	-0.9%	-4.8%	-1,093 억	-9 억
KRX Semicon	1,996.70	-0.4%	6.4%	-1,018 억	55 억
(코) 반도체	1,022.48	0.7%	28.3%	-103 억	61 억
(코) IT H/W	419.83	1.0%	20.4%	-132 억	50 억
(코) IT S/W	2,256.43	1.7%	12.9%	86 억	202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82,000	-2.4%	-3.4%	-844 억	15 억
LG전자	53,200	-0.6%	-10.0%	-46 억	-70 억
삼성SDI	112,500	-0.9%	-3.0%	-64 억	-64 억
삼성테크윈	32,000	-2.4%	34.2%	-22 억	7 억
서울반도체	17,050	0.0%	-15.6%	-5 억	-1 억
신도리코	66,900	-1.6%	-1.3%	-2 억	-1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8,000	-0.1%	0.5%	-109 억	8 억
이오테크닉스	108,200	-2.5%	-13.6%	-4 억	-18 억
월익IPS	14,650	-3.3%	5.0%	-51 억	14 억
리노공업	50,300	2.8%	31.3%	-11 억	11 억
유진테크	17,700	-1.9%	9.6%	0 억	-2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70,000	-1.8%	-8.0%	39 억	-55 억
SK C&C	269,000	-3.2%	26.0%	-29 억	-29 억
포스코 ICT	5,010	0.7%	-5.5%	4 억	0 억
다우기술	17,450	1.2%	46.0%	1 억	-2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90,000	0.5%	-17.1%	74 억	-6 억
다음카카오	117,000	2.5%	-5.3%	25 억	135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8,200	-2.3%	-16.2%	-32 억	-57 억
에스에프에이	46,100	0.0%	-7.2%	-1 억	0 억
솔브레인	48,000	2.6%	49.3%	16 억	-11 억
덕산하이메탈	9,190	0.4%	-17.6%	-1 억	0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5,600	0.0%	1.6%	-37 억	0 억
LG이노텍	99,800	3.6%	-11.3%	-5 억	93 억
파트론	9,560	1.4%	-18.6%	0 억	2 억
루멘스	4,780	0.3%	-32.2%	-1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9,750	-4.9%	43.0%	10 억	-4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0,000	-1.8%	4.4%	6 억	-15 억
컴투스	140,900	-1.3%	5.4%	-13 억	13 억
NHN엔터테인먼트	56,500	-0.5%	-35.4%	-18 억	-3 억
게임빌	99,000	-1.3%	-18.0%	-6 억	-1 억
위메이드	40,800	0.7%	7.9%	-4 억	5 억
선데이토즈	18,000	-3.0%	4.7%	-6 억	5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40,400	2.5%	456.0%	23 억	-15 억
한글과컴퓨터	17,850	2.3%	-11.6%	0 억	2 억
코나아이	34,300	0.9%	1.8%	-6 억	-2 억
슈프리카	20,950	3.2%	-17.7%	-1 억	1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1.30	-0.4%	2.9%
MSCI Internet	158.96	-0.2%	4.1%
MSCI Software	168.33	-0.3%	2.9%
MSCI Semicon	217.42	-0.3%	-1.2%
MSCI IT Services	123.00	-0.1%	4.5%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2.16	-0.2%	2.2%
Facebook	80.67	0.0%	3.4%
Tencent	155.00	-0.1%	37.8%
Baidu	202.56	-0.3%	-11.1%
Yahoo	41.63	-0.9%	-17.6%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65	-0.2%	-1.7%
Oracle	43.07	-0.1%	-4.2%
SAP	72.73	-0.9%	4.4%
EMC	26.71	0.2%	-10.2%
Symantec	23.44	0.0%	-8.6%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42	-0.3%	15.4%
Nokia	7.15	0.0%	-9.0%
Lenovo	11.48	-3.2%	12.5%
ZTE	21.45	-4.0%	27.4%
HTC	75.3	-9.9%	-47.0%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25	-0.2%	-13.9%
Qualcomm	66.84	-0.7%	-10.1%
Texas Instruments	52.91	0.2%	-1.0%
Micron	25.19	-2.8%	-28.0%
Toshiba	442	-2.4%	-13.8%
Renesas	937	-3.1%	13.9%
STMicro	8.30	-1.8%	11.1%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5.68	0.2%	3.3%
HP	32.58	-0.3%	-18.8%
Accenture	94.94	0.2%	6.3%
Fujitsu	707	-2.5%	9.7%
NTT Data	5,370	-2.5%	18.9%
CSC	66.43	-0.9%	5.4%

Hardware	close	1D	YTD
GE	27.33	0.3%	8.2%
Panasonic	1,697	-2.3%	18.9%
SONY	3,607	-2.4%	45.9%
Whirlpool	182.99	-1.3%	-5.5%
Electrolux	253.50	-0.5%	10.8%
Haier	21.95	-2.9%	18.9%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19,385	-3.1%	46.3%
KYOCERA	6,623	-1.4%	19.2%
Nidec	8,781	-2.4%	11.8%
TDK	9,800	-3.7%	36.9%
Ibiden	2,171	-2.7%	21.4%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8	-0.6%	-37.3%
Japan Display	517	-3.7%	39.7%
AUO	4.74	-4.4%	-6.9%
Innolux	16.15	-6.9%	4.9%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74 억	삼성전자	-844 억
웹젠	47 억	SK하이닉스	-109 억
삼성에스디에	39 억	삼성SDI	-64 억
다음카카오	25 억	월익IPS	-51 억
골프존	23 억	LG전자	-46 억
파루	20 억	삼성전기	-37 억
안랩	20 억	LG디스플레이	-32 억
솔브레인	16 억	SK C&C	-29 억
엘오티베콤	12 억	KH바텍	-26 억
일진디스플레이	10 억	삼성테크윈	-22 억
젬백스테크놀	9 억	실리콘웍스	-22 억
한국정보인증	8 억	NHN엔터	-18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135 억	LG전자	-70 억
LG이노텍	93 억	삼성SDI	-64 억
실리콘웍스	34 억	LG디스플레이	-57 억
테스	22 억	삼성에스디에	-55 억
아프리카TV	20 억	SK C&C	-29 억
웹젠	19 억	이오테크닉스	-18 억
OCC머티리얼	16 억	골프존	-15 억
삼성전자	15 억	엔씨소프트	-15 억
월익IPS	14 억	심텍	-12 억
누리텔레콤	13 억	LS산전	-12 억
컴투스	13 억	KG이니시스	-11 억
리노공업	11 억	솔브레인	-11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7041.07	-0.5%	-7.3%
DDR3 2Gb (Spot)	1.67 \$	-0.6%	-24.4%
NAND 64Gb (Spot)	2.58 \$	0.0%	6.6%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4.5%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리노공업	2.8%	최근이슈

리노공업, 지속적인 성장 전망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용 PROBE PIN 및 소켓 제조 업체로 글로벌 Top Tier 기술력 및 M/S를 바탕으로 신규 디바이스 출하에 따른 직수혜 누리는 중. 1Q15 매출액 비중 리노핀 58.1%, IC Test Socket 39.8%, 기타 (상품 외) 2.1%. 다수의 팹리스 및 파운드리, 테스트 하우스 등을 고객으로 하여 이미 고객다변화를 이루어 놓은 상황.

미세 가공 기술 및 코팅에 강점을 지님. 신공장 가동 이후 지속적인 CAPEX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설비 확보. 지역(부산) 내 유일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업체로, 낮은 이직률 및 장기 근속으로 다수의 숙련공 보유. R&D를 통한 맞춤형 설비 개조 등을 통해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및 최단기의 납기에 적합한 생산 시스템 보유. 이를 통해 1,300여 고객사(월 기준 500여개사)에게 납품 중. 이러한 특성을 통해 제품가격 인하 보다는 선도 업체로서의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고마진 시현(30%대 유지중)을 통해 확인됨.

현재 Test Socket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진행 중. 이는 동종 업계 타사들의 매출액 동반 성장에서도 나타나는 상황.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DDR4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 중이며, 특히 모바일 기기용 LP-DDR의 수요 성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검사 소켓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 향후 주요 고객사 CPU의 미세화 공정이 본격 도입될 경우, 초기 테스트용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시작과 이의 양산 물량 투입을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기존 성장 공식이 다시 구현될 것으로 보임. 기존의 메모리 테스트 위주에서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특히 전공정으로 사업 영역 확장 중

향후 매출액 성장의 주요 Key가 될 것으로 보이는 WLT (Wafer Level Test: 반도체 다이싱 공정 이전 웨이퍼 상태에서 불량 여부를 판정) 용 Probe Card 매출 역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임. 기존의 핀 및 소켓 매출이 대부분 후공정 이후 패키징 테스트 부품업체의 성격을 띄었다면, WLT용 Probe Card의 경우 전공정 단계 테스트 부품업체로의 한단계 성장을 이루어줄 것으로 보임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솔브레인	2.6%	최근이슈

솔브레인, 2Q15 반도체소재 및 디스플레이소재부문 호조, 3Q15 실적 개선세 확대될 전망

솔브레인의 2Q15 실적은 1) 주요고객사의 신규라인 가동효과 및 미세공정전환 가속에 따른 반도체 부문 호조세 지속과 2) 디스플레이소재부문의 안정적 성장세 등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 2Q15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5.2%(QoQ), 6.3%(QoQ) 증가한 1,486억원, 227억원을 기록할 전망. 이러한 실적 호조세는 2H15에 주요고객사의 신규라인 가동효과 및 공정전환 가속에 의한 반도체부문 큰 폭 개선과 디스플레이소재부문 안정적 성장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 3Q15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7.9%(QoQ), 9.3%(QoQ) 증가한 1,603억원, 2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동사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첫째, 2015년 동사의 반도체부문 실적은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라인 가동효과로 크게 개선될 것이며, 둘째, 2014년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었던 thin glass부문이 2015년 삼성전자 갤럭시S6의 성공적인 출시 및 스마트폰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회복되며 안정화될 것이며, 셋째, 자회사들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동사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넷째, 현 주가는 2015년 실적기준으로 P/B 1.5배 수준으로 과거 밴드의 중하단에 위치해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고, 주력사업부인 반도체소재산업 호황을 고려할 경우 적용 Valuation이 상향될 가능성 존재.

동사 주가는 1) 1Q15 및 2Q15 실적 호조와 2) 2015년 반도체 소재업황 호조에 의한 큰 폭의 실적 개선, 기관 및 외국인 매수세 등으로 지난 1개월 및 3개월전 대비 각각 10.9%, 9.4% 상승. 당사는 2015년 반도체부문의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이에 따른 2015년 실적 큰 폭 개선, 디스플레이소재부문의 안정적 성장, 2014년 실적부진의 주원인이었던 thin-glass부문 실적안정화 등에 주목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연일 쿷노래 부르는 D램, UHD TV·듀얼카메라 폰으로 '탄력'

D램 시장에 호재가 계속됨. 중저가 스마트폰 용량이 커진 데 이어 초고화질(UHD) TV, 듀얼 카메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메모리 수요처가 늘고 있음. 지난해 D램은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을 주도했고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상반기부터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용량 메모리를 채택하기 시작했고 하반기 고화질 듀얼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이 등장해 D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4K 해상도 대화면 UHD TV 시장이 커지는 것도 D램 시장에 긍정적. 대용량 스마트폰은 모바일 D램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결정적 수요처. 애플이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신제품 용량이 기존 1GB에서 2GB로 늘어날 전망. 삼성전자 갤럭시S6는 3GB LPDDR4를 탑재.

애플 신제품 모바일 D램 용량이 늘어나면 올해 연간 세계 모바일 D램 비트그로스 가 약 5%pt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용량 모바일 D램을 탑재하는 흐름도 긍정적. 샤오미, 레노버 등 중국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4GB 모바일 D램을 채택하는 등 대표모델을 중심으로 대용량 모바일 D램을 탑재하고 있음. 애플이 차기 모델에 1,300만화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호재. 한 면에 카메라를 두 개 장착하는 듀얼 카메라까지 등장하면 데이터 처리·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커져 메모리 용량도 늘어남.

4K급 UHD TV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D램 시장 확대에 긍정적. 고해상도 TV는 일반 TV보다 픽셀 수가 많아 더 많은 타이밍 컨트롤러(T-CON)와 D램이 필요. 영상처리 엔진 등 소프트웨어 성능도 높아져 고화질 TV일수록 D램 용량이 늘어남. UHD TV는 풀HD보다 화질이 네 배 높아 D램 용량도 커짐. 삼성전자가 북미에 출시한 SUHD TV는 8GB D램을 탑재. 4K UHD TV에 최소 3.5~4GB D램이 필요. LCD TV 시장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UHD TV는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음. IH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출하량은 약 400% 증가. IHS는 UHD TV용 D램이 올해 작년 대비 갑절 커질 전망. 2014년 6,800만달러 시장 규모에서 2015년 1.36억달러, 2016년 2.03억달러로 성장할 전망.

전자부품 Component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이노텍	3.6%	주가하락

News & Issue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기능 확대 긍정적

LG이노텍이 올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차별화 노력과 IT 환경 변화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강세. 카메라 모듈의 기능 변화로 지속적인 매출,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올해 하반기 글로벌 전략 거래선의 화소 수 변화로 평균판매단가가 상승할 전망 "LG전자도 올해 5분기 추가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고 카메라 모듈의 기능 확대가 차별화 요인이 될 것.

이어 "이동통신 부품이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선점 효과도 기대되고 LED의 감가상각비가 올해 4분기에 감소하면서 내년 전체 이익에 기여할 것.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LED가 TV 수요 부진으로 이익 개선이 지연돼 전분기 대비 각각 0.8%, 1.6% 줄어든 1조 5287억원, 679억원으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익 개선이 확대될 전망.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음카카오	2.5%	M&A

News & Issue

다음카카오 케이벤처그룹, 탱그램디자인연구소 인수

다음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은 8일 UX 디자인 기업 '탱그램디자인연구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케이벤처그룹은 탱그램디자인연구소의 지분 51%를 인수.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케이벤처그룹의 자회사가 된 후에도 현 경영진 체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소프트웨어와 제품 디자인을 하는 회사로, 2008년 설립됨.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어워드'를 2008년부터 7회 연속 수상.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산하 탱그램팩토리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진출. 탱그램팩토리는 올 여름 한국, 미국, 일본에서 스마트 로프(Smart Rope)를 출시할 예정. 스마트 로프는 손잡이에 달린 센서와 23개의 LED 전구를 이용해 줄을 넘을 때마다 빛수를 눈 앞에 가상현실처럼 보여주는 줄넘기. 스마트 로프는 올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주최 측이 선정한 혁신 제품 3위에 랭크됨.

박지환 케이벤처그룹 대표는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기획과 디자인, 개발, 완제품의 생산, 마케팅을 빠르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벤처 기업이며, 특히 줄넘기를 이용해 대중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체험하고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다음카카오의 사업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 정덕희 탱그램디자인연구소 대표는 "사람과 사물의 연결과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과 공간의 연결까지, 모바일 다음의 새로운 플랫폼을 고민해왔으며,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에서 가장 발전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다음카카오와 함께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전자	-2.4%	주가하락

News & Issue

'갤럭시S6 때문에', 삼성전자 엇갈린 2분기 실적 전망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판매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신작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IM사업부문 실적이 개선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2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 우려도 존재.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7.38조원, 순이익 6.4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이것은 전분기 대비 각각 23%, 39% 씩 늘어난 수준이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3% 씩 증가한 수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당초 시장에서 갤럭시S6를 모멘텀으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음.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수요 예측이 엇갈리며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우려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 최근 홍콩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글로벌 4월 판매량이 약 600만대를 기록해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의 21%를 차지했다고 발표.

이것은 전작 갤럭시S5가 기록한 출시 첫 달 판매량보다 높은 수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노트4와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A 시리즈의 4월 판매량이 전달보다 30~40% 감소했으며 갤럭시S5 판매 역시 줄어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은 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M 총괄 2분기 실적은 갤럭시S6 출시와 마케팅비용 효율화 등으로 개선될 것이며 "갤럭시S6 출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회복돼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크게 늘 것이란 의견 존재. 반면 일부 외신 등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6를 내놓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를 늘리려고 했지만 활기를 띠지 못하며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가 2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조정. 2분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 교체 효과로 전분기 보다 4.5% 감소한 8,000만대를 기록할 것이며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0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